



#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육계 집단폐사, 시청에 피해보상 요구로 이어져

◇ 정리 / 김동진기자

## 일주일만에 25,000수 집단 폐사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서 7만수 규모로 10여년간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봉득(봉봉농장, 본회 경북지부 회원) 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경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25,000수에 달하는 닭들이 집단폐사하고 정원 연못에서 담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상주시청을 상대로 4개월간 배상문제를 놓고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로 보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사장이 상주시에 물에 대한 이상징후를 전화상으로 보고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이다. 사실 2~3년 전부터 육계 폐사율이 예전에 비하여 높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만들어 놓은 정원 연못에 담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시간이 가면서 연못 물이 붉은 색을 띠어감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의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침출수가 연못에 유입되고 있다는 의심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9월20일 입추시킨 65,000수의 닭들이 25일령부터 설사증세를 보였으며 다방면으로 조치를 하였으나 25,000수의 닭들이 1주일에 걸쳐 집단 폐사를 한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소방소에 연락하여 급수를 받는가 하면 이웃집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겨우 나머지 닭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출하시켰다. 김사장은 닭사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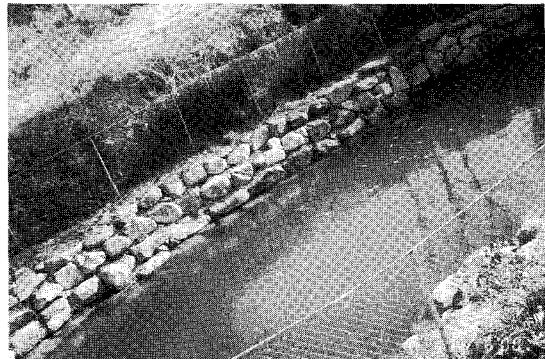


쓰레기 침출수로 집단 폐사된 닭들을 처리하면서 허탈해 하는 김봉득 사장

있어서 성장은 다른 농가보다 빠른데 비해 육성율이 많이 떨어지고 수질오염으로 말미 암아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년간 손실액만 해도 무려 2억원 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쓰레기 침출수 방지한 상주시청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폐사 육계 폐기처리 방안에 대해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검사결과를 보면 주 폐사원인은 대장균으로 판정이 났고, 지하수 역시 기준에 부적합한 대장균 양성반응으로 결과가 나왔다. 쓰레기 매립장은 김사장 농장과 겨우 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수량이 40mm가 되면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사실 상주시는 1991년도 2~3년간의 임시매립 후 이주하겠다는 인근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9년간에 걸쳐 7,000여톤의 쓰레기 및 폐사한 가축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에는 김사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쓰레기 매립장을 옮길 것과 침출수 방지시설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비닐차수막만을 설치하는 등 성의없이 일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에서는 ‘검사결과 대장균 양성반응은 나타났으나 쓰레기 침출수가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립장의 침출수 피해라면 정확한 인과 관계를 제출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책



△정원연못이 붉은색으로 변해 담수어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단식투쟁과 배상 약속

따라서 김사장은 지난 12월 22일부터 1주일 간에 걸쳐 상주시청 현관에서 삭발 단식투쟁을 펼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상주시청은 지난 1월 3일 쓰레기 오염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지하수를 우선 조치해 주고 육계폐사 및 사업손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준하여 배상하겠다는 합의문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1월 10일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이다. 김사장이 시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액은 39,700만원으로 수질오염에 따른 식수 및 축수 이전금액, 수질오염에 따른 육계피해액, 수질오염에 따른 연못복구작업비, 토양오염에 따른 지가 하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분쟁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있던 농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락처 : 017-422-8818) ■ 양계